

■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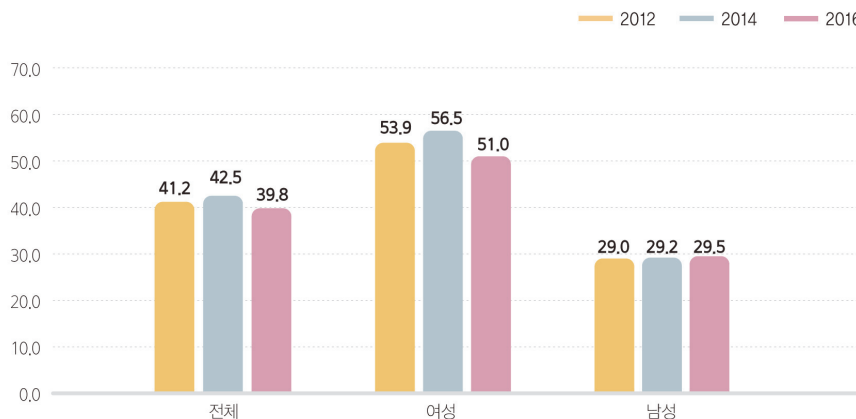
- 2017년 울산광역시민의 스마트폰 활용용도를 살펴보면, 채팅, SNS 등 커뮤니케이션 활용이 76.3%로 가장 높았으며, 사진 및 동영상이 70.4%, 뉴스가 47.4%, 게임 22.6%로 나타났으며 전국 수치와 비슷한 수준임.

## 10. 안전 및 환경

### 1) 안전인식

〈그림 X-1〉 성별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

(단위 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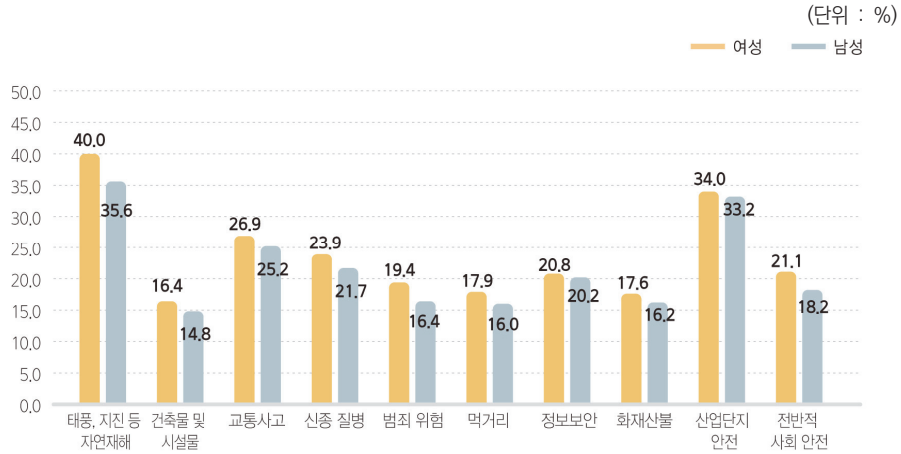
주 : 1) 모든 수치는 반올림의 원인으로 세목과 합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.

2) 두려운 이유는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집계함.

자료 : 통계청, 「사회조사」.

- 2012년~2016년 사이 울산광역시민 중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이 느끼는 시민은 2012년 전체 41.2%였으며, 여성은 53.9%, 남성(29%)의 약 2배 정도 수준임. 2016년의 경우 전체는 약간 감소하여 39.8%였으며, 여성은 50%로 남성 (29.5%)의 약 2배 수준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야간보행에 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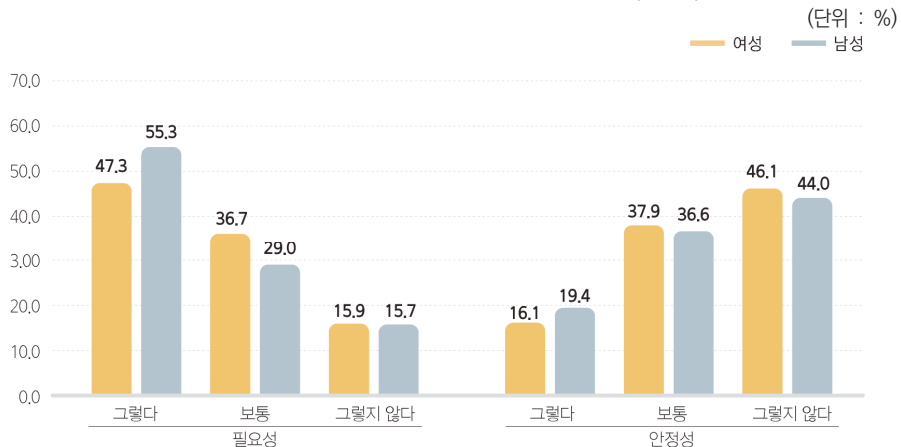
〈그림 X-2〉 성별 사회 분야별 불안 인식(2017)



자료 : 울산광역시, 「울산 사회조사」.

- 2017년 울산광역시 시민의 다양한 사회분야(10개)별 안전에 대한 인식을 성별에 따라 살펴 보면, 여성은 태풍, 지진 등 자연재해(40.0%), 산업단지 안전(34%), 교통사고(26.9%), 신종 질병(23.9%), 전반적 사회안전 (21.1%), 정보보안(20.8%), 범죄위험(19.4%), 먹거리 (17.9%), 화재산불(17.6%), 건축물 및 시설물(16.4%)의 순으로 나타남. 남성은 태풍, 지진 등 자연재해(35.6%), 산업단지 안전(33.2%), 교통사고(25.2%), 신종질병(21.7%), 정보보안 (20.2%), 전반적사회안전(18.2%), 범죄위험(16.4%) 화재산불(16.2%), 먹거리(16%), 건축물 및 시설물(14.8%)의 순으로 나타남.

〈그림 X-3〉 성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견해(201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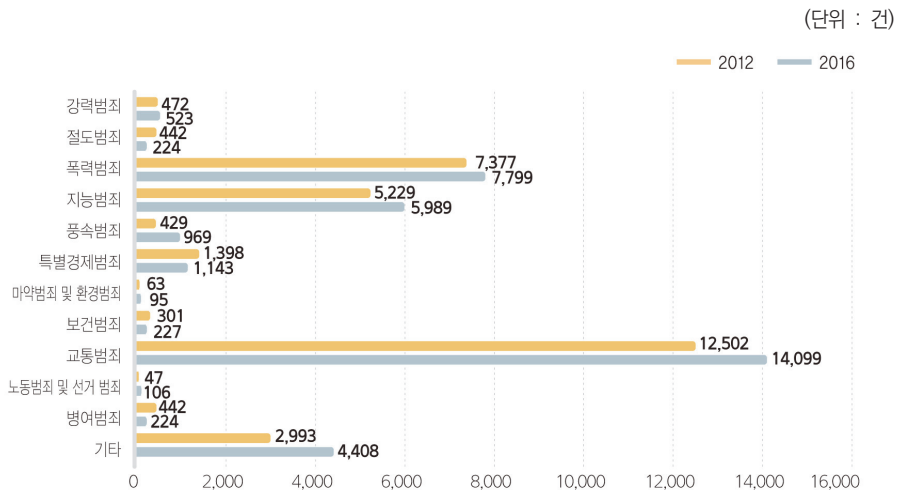
자료 : 울산광역시, 「울산 사회조사」.

■ 2018 울산광역시 성인지 통계

- 울산의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산업단지 및 원자력 발전소 등이 있다는 것인데 최근 빈번히 발생한 지진 등으로 인해 시민들 사이 자연재해, 산업단지안전 등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편임. 2017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인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. 그 중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여성은 47.3%인 것에 반해 남성은 55.3%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,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은 16.1%가 그렇다는 반면 남성은 19.4%로 높게 나타나며, 안정성이 낮다고 인식한 여성은 46.1%이며, 남성은 44%로 나타남.

2) 안전실태

〈그림 X-4〉 울산사회 범죄 발생 건수



자료 : 경찰청, 「경찰청범죄통계」.

- 울산지역의 연간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총 37,362건에서 2016년 총 39,799건으로 증가하였으며, 그 중 교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12,502건에서 2016년 14,099건으로 대폭증가하였음. 그 다음은 폭력범죄로 2012년 7,377건에서 2016년 7,799건으로 증가, 지능범죄는 2012년 5,229건에서 2016년 5,989건으로 증가하는 등 대체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음.